광주시민단체, 양향자 '역사왜곡금지법' 철회 요구 왜?

5·18역사왜곡처벌법과 병합…불필요한 '이념·역사 전쟁' 우려

광주 시민사회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의 1호 법안인 '역사왜곡금지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3일 논평을 통해 "양 의원의 돌출 행동을 우려한다"며 "역사왜곡금지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폄훼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을 이유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2회 이상 재범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이 처벌의 대상을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 일제시대와 세월호까지 한국 근현대사 사건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협은 "지난 조국사태에서 목도했듯이 지금 한국사회는 극심한 이념 갈등과 분열의 터널 속에 갇혀 있다"며 "아직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이 포함된 법안이 상정되면 극심하고 불필요한 '역사 논쟁'과 '이념 전쟁'을 유발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애초 광주·전남 의원들이 5·18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역사왜곡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양 의원의 역사왜곡금지법이 발의돼 심의 절차를 밟게 되면 5·18역사왜곡처벌법과 병합돼 입법이 지연될 개연성이 크다.

통상적으로 국회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비슷하면 병합해 심사한다. 양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처벌법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려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이 비슷해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법 개정이 아닌 제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공청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의 반대 등으로 입법이 늦어질 게 뻔하다는 우려다.

시민협은 "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욕적인 입법 활동을 탓하거나 광주·전남 의원들에게 모든 법안 처리에서 원팀을 요구할 생각은 없다"며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들을 단죄하는 역사왜곡처벌법 처리 문제는 지금의 정치 지형과 이념 갈등 등을 감안, 전략적 판단과 방법적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의 눈에 띄는 돌출 행동으로 다루어질 일이 아니다"며 "이 사안은 더는 용인하거나 시간을 끌 수 없는 광주·전남의 절박하고도 중차대한 입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신봉우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49명…당국 "아직 더 지켜볼 필요"

"아직 의료체계 감당 수준 이내…추이 평가·분석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행 필요성에 대해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서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산발적 소규모 감염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엄중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은 방역체계를 전환할 것인지 아직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9명 발생했다. 최근 5일 중 최대 규모다. 특히 신규 확진자 49명 중 지역내 발생은 46명으로 대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이 17명, 인천 17명, 경기 11명이다.

인천에서는 개척교회 성경모임 관련 연쇄감염이 늘어나고,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접촉자 감염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서울에서는 생명보험사 등 회사 내 감염자도 잇따라 발생해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여럿 나왔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초기의 지표환자들로부터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와 역학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은 적어도 우리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 좀 더 지켜보면서 평가하고 분석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이슬 기자

'승리동업자' 유인석 대표, 첫 재판서 "혐의인정"

승리, 군사법원서 따로 재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와 동업하던 중 회사돈을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3일 오전 10시45분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 전 대표 등 6인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가담정도나 참작정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유리홀딩스 측 변호인은 "추후 진행상황을 보고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승리, 유 전 대표 등과 함께 몽키뮤지엄의 수익 배당을 높이기 위해 금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 등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와함께 지난 2015년~2016년 승리와 유 전 대표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직원 최씨 등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30분께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증거인부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 유 전 대표 등 7명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가수 승리가 군입대를 하면서, 승리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가수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는다.

뉴스1

3월 따뜻·4월 눈 오고 쌀쌀 윤달 낀 올봄 날씨 변덕 심해

기상청, "올 여름 7월말~8월중순 지난해보다 더워"

올 초봄은 평년대비 기온이 높았던 반면 봄의 절정인 4월에는 쌀쌀한 날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여름에 가까워지면서 평년수준을 상회했으나 기온차는 널뛰듯 심했다.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변화감시과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봄철 기상특성'을 3일 발표했다.

올 3월은 평균기온 7.9도로, 평년 5.9도 대비 2도 이상 높았다. 지난 1973년 이후 47년 중 2번째로 따뜻했던 3월인 셈이다.

이에 비해 4월은 평년 12.2도에 비해 1.3도 낮은 10.9도로 기록, 뒤에서 5번째에 위치했다. 5월은 평년(17.2도) 대비 0.5도 높은 17.7도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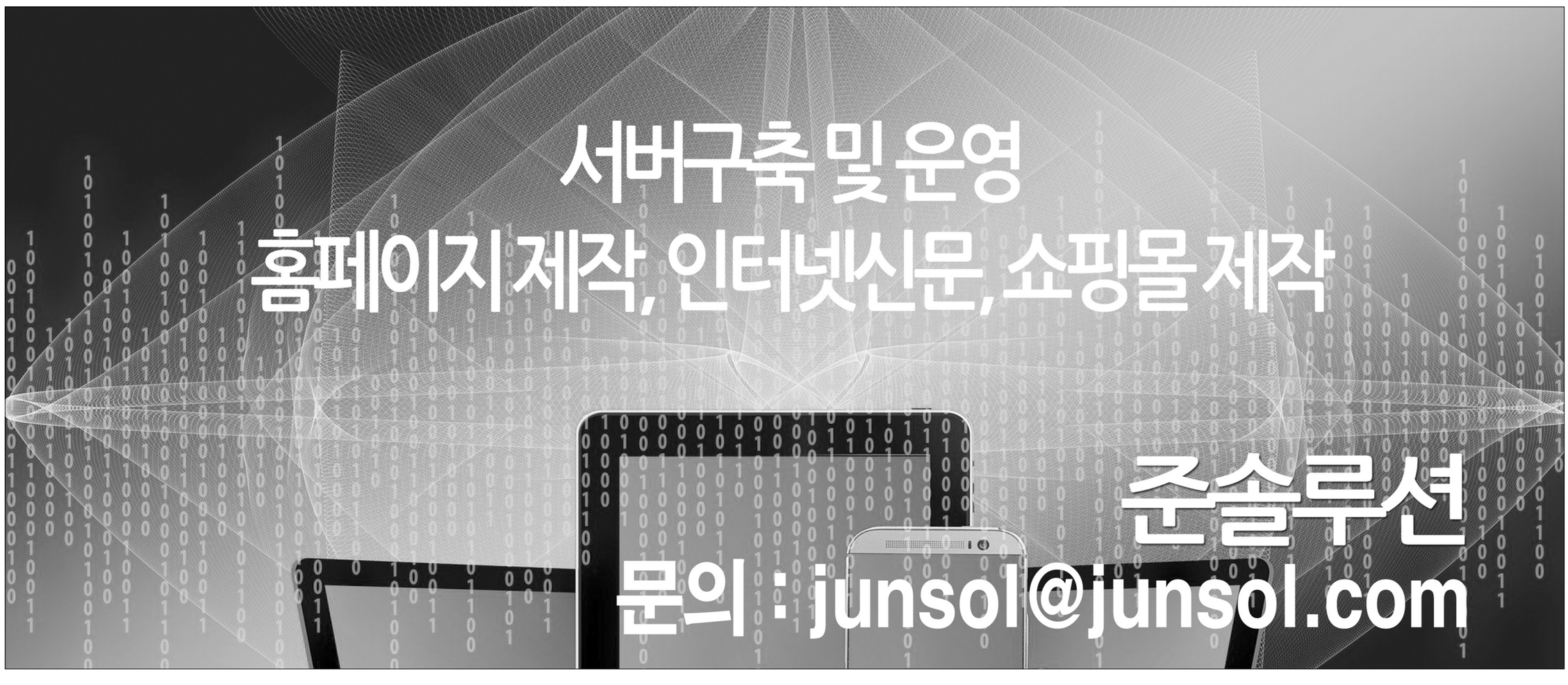
기상청은 "3월은 북극에 찬 공기가 갇혔고, 시베리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2℃ 이상 높게 유지되면서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약했다"고 평년대비 따뜻했던 3월 날씨를 설명했다.

4월은 러시아 바이칼호 북서쪽에 키가 큰 따뜻한 공기가 정체, 고기압이 고위도에서 정체했고, 남북 흐름이 강화되면서 북서쪽 찬 공기가 한반도 인근으로 유입되면서 봄철 치고 추운 날씨가 나타났다.

지난 4월22일 서울에는 진눈깨비가 내렸다. 이는 1911년 4월19일 관측된 봄철 진눈깨비 이후 '가장 늦은 봄눈' 기록을 109년 만에 갈아치운 눈으로 기록됐다.

황사는 1.0일로, 평년(5.4일)의 18.51% 수준으로 기록돼 단기적 급감세를 보였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울 전망이다. 본격적인 무더위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기상청은 6월부터 시작된 올여름 기온은 평년(23.6도)보다, 그리고 지난해(24.1도)보다 각각 0.5~1도 올라간다고 밝혔다. 폭염일수는 20~25일로 지난해 13.3일보다 많다. 열대야일수 또한 12~17일로 지난해 10.5일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호 기자